

떠남의 기록

2026년 4월 9일

나는 2년 전부터 두 번의 예외¹를 제외하면 한국 수학자들과 (익명으로도) 소통하지 않고 있다. 나는 수학 관련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발을 끊었다.² 나는 스스로의 인정만으로 살고 있다.³ 남보다 잘나가거나 못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.⁴ 꼭 수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.

¹2024년 12월 연구실 방문, 2025년 6월 졸업 논문 작성.

²(4월 11일) “수학 관련”을 지워도 맞는 말이다.

³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.

⁴많은 수학을 배웠다고 해서, 심지어 많은 수학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자신이 한국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다른 수학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이다. 한국에서 Scholze와 같은 천재가 나오면 그들은 한순간에 범부가 될 것이며, 그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. (Scholze만큼 뛰어난 수학자라 해도 수학을 남을 멸시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다를 바 없이 가련한 사람이다.)